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 초보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천 혜 숙

유 미 숙

조 유 진[†]

소아청소년 마음클리닉 디딤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초보 상담자의 자기개방, 슈퍼비전 작업동맹,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초보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놀이치료 슈퍼비전 경험이 있으며 상담경험이 3년 미만인 초보상담자 94명을 대상으로 자기개방, 슈퍼비전 작업동맹,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초보 상담자의 자기개방, 슈퍼비전 작업동맹, 자기효능감 변인 상호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슈퍼비전 작업동맹은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슈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놀이치료 슈퍼비전, 자기개방, 슈퍼비전 작업동맹,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 교신저자 : 조유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파크뷰아파트 227동 1402호.
Tel : 010-9258-6674, E-mail : c-joshua@hanmail.net

오늘날 한국사회의 아동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비해 상당수 아동에게서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장애, 인터넷·게임 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 및 부적응 심화와 같은 정신과 적 문제들에 관한 사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양육방식은 심화되어가는 아동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 또한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놀이치료는 그 효과와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곽영숙, 1992; 김향숙, 2007; 유미숙, 1999; 최경희, 2007; Landreth, 1991; Schaefer, 1979). 아동들은 성인과는 달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치료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놀이치료에서는 놀이치료자 자신이 하나의 도구로써 중요한 치료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심리적인 성장을 위한 놀이치료의 핵심적인 활동은 치료자와 내담아동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치료사의 질은 놀이치료의 중요한 요소이다.

놀이치료자의 전문적 자질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자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여러 학자들(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Prutt, McColgan, Pugh, & Kiser, 1986)은 놀이치료자로서의 성장 및 상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해 왔다. 이와 유사하게 Johnson, Baker, Kopala, & Thompson(1989) 또한 슈퍼비전의 과정을 통해 상담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상담 수련생 훈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언

급한 바 있다.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란, 가까운 미래에 자기 자신이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되는데(Friedlander, Keller, Peca-Baker, & Olk, 1986; Larson, Clark, Henderson, Koraleski, Daniels, & Smith, 1998; 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 & Toulouse, 1992), 이는 치료자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습에 노력하고 도전하여 상담에서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상담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rson et al., 1998). 그러므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효과적인 상담행동을 위한 일차적이면서도 중요한 잠재결정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평가로 인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Friedlander et al.(1986), Jonson (1985), Jonson & Seem(1989), Larson et al.(1992) 등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있는 상담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상담자의 자기개념, 수행수준, 문제해결 평가요인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국내의 경우, 임혜인과 유미숙(2004), 홍수현과 최혜림(2001)의 연구에서 상담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일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내담자와 보다 강한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되었으며, 황인호(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의 경우 상담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 외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권이경, 김광웅, 2004) 역전이 관리 능력과도 관계가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일수록 자신의 불안을 잘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내담자

의 역동을 잘 개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운수, 2001).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는 자신이 상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내담아동과 그 부모를 다루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심리적 소진 및 역전이 등 상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내담자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보다 기능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는 어려운 상담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인지하여 더욱 노력하고 도전하는 행동을 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치료자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궁극적으로 내담아동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놀이치료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학자들은 슈퍼비전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자신과 내담자, 상담과정에서의 활동, 슈퍼비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해 왔다(강지연, 2006; 손승희, 2004; 윤소영, 2006; Armeniox, 2000; Ladany, Hill, Corbett, & Mutt, 1996; Ladany & Lehrman-Waterman, 1999; Yourman & Faber, 1996). 즉, 슈퍼바이저의 개방은 상담에서의 실수를 예방하고 슈퍼비전 과정을 촉진하여 슈퍼비전의 이득을 최대화하지만, 반대로 비개방은 내담자 보호의 기회를 막아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슈퍼비전의 질을 감소시켜 유능한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Betcher & Zinberg, 1988; Ladany et al., 1996; Yerushalmi, 1992; Yourman

& Farber, 1996) 것이다.

그러나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슈퍼비전에서의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는 상담과정 및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개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승희, 2004; 윤소영, 2006; Greben, & Ruskin, 1994; Ladany et al, 1996). 보다 구체적으로, Ladany 등(1996)의 연구에서 슈퍼바이저의 97%가 슈퍼바이저에게 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Yourman과 Faber(1996)의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의 39.8%가 상담에서의 실수를 개방하지 않으며 슈퍼바이저의 59.1%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개방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바이저의 평가, 점수,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유지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은 비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dany et al, 1996; Yourman & Faber, 1996).

국내의 경우 손승희(2004)의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의 연구에서 슈퍼바이저 및 슈퍼비전에 대한 반응,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상담진행 및 개입,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의 5가지 비개방 영역에 따라 슈퍼바이저의 개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비개방의 가장 큰 이유는 슈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손승희, 2004; 윤소영, 2006) 이는 슈퍼바이저의 비개방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처럼 슈퍼바이저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각기 다른 내용에 대해 슈퍼비전에서 의도적으로 비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오히려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손승희, 2004)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태도와 행동 간에는 모순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인의 적응이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자기개방의 순기능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깊은 자기개방은 개인의 불안, 스트레스, 부적응 행동을 낮추고 자기이해를 촉진하며 자기 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기개방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미쳐 개인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교현, 1992, 1995, 2002; 김교현, 한덕용, 1996; 인현정, 김교현, 2002; 박준호, 2007; Pennebaker, 2003, 2004; 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ser, 1988).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면 놀이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의사소통과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더불어 수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수퍼비전의 질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지각, 수퍼비전이 그들의 욕구에 적절한 정도, 그리고 상담자로서 발달을 촉진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손승희, 2004),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수퍼비전에서의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치료자에게 보다 많은 이득을 얻고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요소이며 또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결과는 수퍼비전 과정의 어떤 요소를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전달될 것인가?

선행연구(Greben & Ruskin, 1994; Holloway, 1995; Stone, 1994; Wallace & Alonso, 1994)에 의하면 수퍼바이저의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수퍼비전 관계의 질(이하 작업동맹)이 보고된 바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 변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수퍼바이저의 개방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살펴본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손승희(2004), Callis(1997), Ladany et al.(1996), Webb & Wheeler(1998) 등은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강하고 수퍼바이저와의 라포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수퍼바이저의 개방이 수퍼비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는데(Farber, 2003; March, 2005), 즉 이들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의 개방이 존재해야 수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이나 관계에서의 이득이 최대화 된다고 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떠한 변인이 예측변인인지 어떠한 변인이 준거변인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합의점은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Farber(2003)와 March(2005)의 연구에 기초하여 치료자의 자기개방, 수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즉, 치료자의 자기개방, 수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상담자의 발달을 위한 수퍼비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March, 2005)라는 관점 하에 놀이치료 초심자를 대상으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예측변인으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또한 이

들 관계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들 변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은 슈퍼비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치료자의 자기개방, 슈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슈퍼비전에서 작업동맹의 강도가 초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는 놀이치료 초심자가 슈퍼비전 경험을 통해 숙련 상담자로의 전문적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놀이치료 슈퍼비전 모델을 구축하는데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 및 놀이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그림 1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자기효능감의 예측변인으로 확인되는가?

그렇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개인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상담경험이 3년 미만인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보상담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초보 상담자를 경력이 3년 정도 된 상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김길문, 2004; 손유미, 2005; 신재호, 2005; 오정희, 2007), Skovholt 등(1997)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천 시간의 연습과 평균 15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경력이 3년 미만인 놀이치료자를 초보상담자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슈퍼비전을 오랫동안 받지 않은 상담자는 제외시켜 최근 6개월 이내 한 명 이상의 슈퍼바이저와 최소한 3회 이상의 개인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받은 초심상담자 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절차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를 위해 복지관 내 상담실, 병원 내 상담실, 대학부설 놀이치료실에 근무하고 있거나 아동상담연구소 및 놀이치료학회가 주최하는 2008년 정기 사례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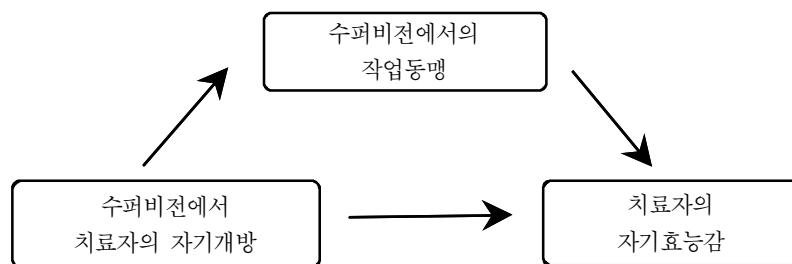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 대상자의 배경적 특성 (N=94)

변인	구분	n(%)
성별	여	94(100.0)
연령	20~29세	72(76.6)
	30~39세	21(22.3)
	40세 이상	1(1.1)
학력	학사졸업	3(3.2)
	석사과정	34(36.2)
	석사졸업	38(40.4)
	박사과정	17(18.1)
	박사졸업	2(2.1)
	전문 아동상담기관	20(21.3)
근무지	복지관 내 놀이치료실	23(24.5)
	병원 내 놀이치료실	23(24.5)
	대학부설 놀이치료실	22(23.4)
	기타	6(6.4)
	놀이치료 경력	
개인 수퍼비전 받은 횟수	1년 미만	22(19.8)
	1~2년 미만	57(51.3)
	2~3년 미만	24(21.6)
	10회 미만	27(28.7)
	10~20회 미만	30(31.9)
수퍼비전 받은 횟수	20~30회 미만	13(13.8)
	30~40회 미만	11(11.7)
	40회 이상	13(13.8)

주. 표의 수치는 N(%)을 나타냄.
무응답에 따라 전체 사례수에는 차이가 있음.

에 참석한 놀이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들 중 상담경력이 3년 미만이

면서 최근 6개월 기준으로 3회 이상의 개인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받은 놀이치료자들에게 설문실시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총 1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중 107부를 회수하여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누락 항목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총 94부의 질문지를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도구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 척도

놀이치료자가 수퍼비전에서 상담활동과 수퍼비전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개방하지 않는 수준, 즉 비개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손승희(2004)가 개발한 ‘수퍼바이저 비개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로 높은 개방수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개방수준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기개방 척도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에 대한 반응,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상담진행 및 개입, 상담자-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가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개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손승희(2004)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94였고,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46~.93의 범위를 보였다.

수퍼비전 작업동맹 척도

수퍼비전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위해 Bahrck(1990)의 작업동맹척도-수퍼바이지용(Supervision Working Alliance Inventory-Trainee version; SWAT-T)을 손은정 등(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orvath와 Greenberg(1989)는 Bordin(1983)의 모델을 바탕으로 상담관계에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개발하였고, Bahrck(1990)이 상담관계에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수퍼비전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Bordin(1983)의 모델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하위 요인인 목표에 대한 동의, 과제에 대한 합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36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전체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작업동맹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였고,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89의 범위를 보였다.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척도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Larson 등(1992)이 개발한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COSE)를 홍수현(2001)이 상담자 자기효능감 질문지(Counseling Self-Efficacy Inventory)로 번안하고 이것을 다시 이윤수(2001)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세부상담 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내담자 다루기, 가치에 대한 자각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놀이치료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이루어

진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과 홍수현(2001)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가 낮게 나온 ‘가치에 대한 자각’ 영역을 제외하여 수정, 보완한 이윤수(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척도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였으며,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82의 범위를 보였다.

자료분석 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문제 1, 2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인 자기개방, 수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 변인이 유의한 예측변인지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자기개방을 예측변인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표 2. 자기개방, 수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94)

변인	문항 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자기개방	45	97-219	144.15	22.64
수퍼비전 작업동맹	32	131-244	194.18	24.79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23	90-184	134.00	18.64

표 3. 수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94)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 ²	F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자기개방	.24	.31	8.55**	.09	9.59**

**p<.01

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r^2 = .09$, $F=9.59$, $p<.01$). 수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예측해주는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전체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즉, 놀이치료 수퍼비전에서 치료자가 상담활동과 수퍼비전에 관련된 정보와 경험들에 대한 개방을 많이 할수록 상담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의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 검증에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수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 수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변인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수퍼비전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3$, $p<.001$), 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1$,

표 4. 수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N=94)

	1	2	3
1. 자기개방	-		
2. 수퍼비전 작업동맹	.43***	-	
3.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31**	.54***	-

* $p<.05$, ** $p<.01$, *** $p<.001$

$p<.01$). 또한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4$, $p<.001$).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의 상관이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수퍼비전에서의 치료자 자기개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투

표 5. 슈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N=94)

단 계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자기개방 → 슈퍼비전 작업동맹	.43***	.19	20.90***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자기개방 →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31**	.09	9.59**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자기개방 →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09	.30	19.14***
	2) 슈퍼비전 작업동맹→치료자의자기효능감	.50***		

** $p < .01$, *** $p < .001$

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슈퍼비전 작업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종속변인인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슈퍼비전 작업 동맹을 투입하여 치료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나타는 결과는 표 5와 같다.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작업동맹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개방이 매개변인인 작업동맹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3, p < .001$),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 = .31, p < .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

개변인인 작업동맹이 종속변인인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 = .50, p < .001$)이 유의하였으나, 자기개방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작업동맹은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슈퍼비전에서의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다시금 치료자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놀이치료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상담경력 3년 미만의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슈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 슈퍼비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자가 슈퍼바이저에게 상담과정, 슈퍼비전 과정, 자기 자신에 대해 비개방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여 작업동맹의 약화와 상담자 교육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손승희(2005)의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슈퍼비전 작업동맹은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umeidan, 2002; March, 2005; Nilsson, 1999)에 의해서 지지되 바이다. 또한 슈퍼비전을 통해 치료자의 상담기술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율성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한 연구(Tryon, 1996)와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이 자기개방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킴을 확인한 연구(천혜숙, 2008)와도 그 맥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둘째, 놀이치료 슈퍼비전 작업동맹은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보 상담자의 슈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지지되었으며, 이로써 초보 상담자가 슈퍼비전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강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초보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슈퍼바이저로부터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피드백 대신 지지와 공감,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격려를 받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와 서로 좋은 슈퍼비전 관계를 맺고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며 상담과정

에 대한 가설을 재검토하고 보다 거시적 안목을 획득하고 전문가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Worthen과 McNeill(1996)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그리고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슈퍼바이저의 스타일과 슈퍼비전 만족도, 슈퍼바이저의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한 국내연구(강지연, 2006; 홍지영, 2005)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기여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그 맥을 함께 하는 바(Bernard & Goodyear, 2004; Ladany, 2002; Ladany, Friedlander, & Nelson, 2005) 본 연구의 결과로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좋은 관계의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초보 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열의에 가득 차 있고 이론적 지식도 열심히 습득하지만 자신이 상담과정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상담 과정 중에 적절한 상담 기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슈퍼바이저나 내담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염려하고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Dodge, 1982). 이에 Veach 등(2001)은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에서는 굳건한 관계형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amos-Sanchez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초보 상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발달

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작업동맹의 매개 효과가 뚜렷히 나타났을 수 있을 수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더불어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초보 상담자의 성장 및 슈퍼비전 성과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슈퍼비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시사된다.

종합해보면, 초보상담자는 불안이 높고 자신감이 낮아 슈퍼비전에서 자기개방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슈퍼비전에서의 효율성을 낮추게 되는데 이는 상담자로서의 자기 효능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슈퍼바이저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신뢰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불안이 높고 자신감이 부족한 초보 상담자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자기개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슈퍼비전의 성과 및 상담 성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보 상담자를 훈련하고 교육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자와 슈퍼바이저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초보 상담자가 슈퍼비전 경험을 통해 전문적 성장을 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놀이치료 슈퍼비전 모델 구축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놀이치

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국내 전체 놀이치료 초심자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치료자의 자기개방, 자기효능감, 그리고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주관적 견해가 강하게 반영되므로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소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이 치료자로서의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장되게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 3자(수련감독자, 평정자 등)에 의한 직접 관찰, 면접, 평정 등의 방법이나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모두가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피험자들의 주관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슈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 성인상담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 사용하는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놀이치료자만이 겪는 독특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놀이치료의 대상인 아동은 단순히 '작은 어른'이 아니므로 놀이치료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 부모와 같은 아동의 주변 환경,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 등 성인상담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놀이치료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면모를 정확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경험이 3년 미만인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사례수나 슈퍼비

전 횡수에 대한 자기개방, 작업동맹,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다루지 못한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초보 놀이치료자 중에서도 임상 사례수나 슈퍼비전 받은 횡수에 따라 이러한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놀이치료 슈퍼비전 과정 내의 요인들이 놀이치료자의 발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놀이치료 슈퍼비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놀이치료 슈퍼비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치료관계를 발달시키고 역량 있는 치료자로 발달시키기 위한 놀이치료 슈퍼비전의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놀이치료 슈퍼비전의 과정 및 성과에 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지연, 유성경 (2006). 슈퍼바이지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4), 1005-1021.
- 곽영숙 (1992). 6세 선택적항구증 여아의 놀이치료사례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3(1), 138-146.
- 김교현 (1992).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81-107.
- 김교현 (1995). 분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노출이 생리적 각성, 정서 및 인지적 이해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252-267.
- 김교현, 한덕웅 (1996). 자기노출의 목표, 자발성 및 분노억제경향이 생리적 각성, 정화 및 평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66-88.
- 김길문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향숙 (2007). 위탁가정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 65-79.
- 권이경, 김광웅 (2005). 상담종결 경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8(1), 1-15.
- 박준호 (2007).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및 자기노출이 정서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손승희 (2005). 슈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94.
- 손승희 (2004). 개인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의 비개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유미 (2005). 초보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23-545.
- 신재호 (2005). 초보상담자의 상담과정에 관한 질적분석.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오정희 (2007). 초보 상담자들의 첫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1999). 놀이치료과정에서 아동행동과 치료자반응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수 (200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현정, 김교현 (2002). 약물남용자의 자기노출이 부적 정서와 신체병리 경험 및 약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1), 111-126.
- 임혜인, 유미숙 (2006).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19-337.
- 천혜숙 (2008).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개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 (2007).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3), 51-71.
- 한덕용, 박준호, 김교현 (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99-130.
- 홍수현, 최해림. (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9.
- 홍지영 (2005).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Armenioux, L. F. (2000). *Level of supervisee disclosure in the clinical supervision of counselors-in-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boro.
- Bahrack, A. S. (1990). Role induction for counselor trainees: Effects o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 1484B. (University Microfilms No, 90-14, 39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3rd ed). Boston: Allyn & Bacon.
- Bordin, E. S. (1983). A working alliance based model of supervis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 35-42.
- Callis, M. I. (1997). *Frequency of trainees' nondisclosure to their supervisors as affected by relationship quality and trainee react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Dodge, J. (1982). Reducing supervisee anxiety: A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 55-60.
- Efstation, J. E., Patton, M. J., & Kardash, C. M. (1990). Measuring the working alliance in

- counseling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22-329.
- Farber, B. A. (2004). Nondisclosure and distor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3, 567-575.
- Friedlander, M. L., Keller, K. E., Peca-Baker, T. A., & Olk, M. E. (1986). Effects of role conflict on counselor trainees' self-estimate, anxiety level,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 Grenben, S. E. (1991). Interpersonal aspects of the supervision of individual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 306-316.
- Holloway, E. L.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 approach*, Newbery Park, CA: Sage.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A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Humeidan, M. A. (2002). *Counseling self-efficacy,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ocial influence in supervi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all State, Indiana. USA.
- Johnson, E. (1985). *The relative of self-observation versus self-modeling on counselor trainees' anxiety, recall, self-evaluatio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ounseling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Johnson, E., Baker, S. B., Kopala, M., & Thompson, E. C. (1989). Counseling self-efficacy and counseling competence in prepracticum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8, 205-218.
- Johnson, E., & Seem, S. R. (1989). *Supervisory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in counseling training*.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The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0-24.
- Ladany, N., & Friedlander, M.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trainee's experience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4, 220-231.
- Ladany, N., & Lehrman-Waterman, D. E. (1999).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supervisor self-disclos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supervisor style and the supervisor working allian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143-160.
- Landreth, G. L.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 Muncie, in Accelerated Development Press.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105-120.
- Larson, L. M., Clark, M. P., Henderson, L. A., Koraleski, S. F., Daniels, J. A., & Smith, P. L. (1998). *Choosing grief videos versus plays for increasing counseling self-efficacy in prepracticum trainees: Balancing risk and potency*. Manuscript submitted publication.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V.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arch, D. F.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self-efficacy, and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of counselor education practicum and internship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Florida. USA.
- Nilsson, J. E. (1999). *Acculturation, counseling self-efficacy and role difficulties in supervi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Michigan, Michigan. USA.
- Pennebaker, J. W.(Ed) (2003).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nnebaker, J. W. (2004). *Writing to heal: A guided journal for recovering from trauma and emotional upheaval*. Oakland, CA: New Harbinger Press.
- Pennebaker, J. W., Kiecolt-Glaser, J. K., & Glasser, R. (1988). Disclosure of traumas and immune function: Health implication for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39-245.
- Pruitt, D., McColgan, E. B., Pugh, R. L., & Kiser, L. J. (1986). Approaches to psychotherapy supervision. *Journal of Psychiatric Education*, 10(2), 129-147.
- Ramos-Sanchez, L., Esnil, E., Goodwin, A., Riggs, S., Touster, L. O., Wright, L. K., Ratanasiripong, P., & Rodolfa, E. (2002). Negative supervisory events: Effects on supervision satisfaction and supervisory alli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 197-202.
- Schaefer, C. (1979). *Therapeutic use of child's play*. New York: Aronson.
- Skovholt, T. M., Ronnerstad, M. H., & Jennings, L. (1997). Searching for Expertise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rofess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4), 361-369.
- Stone, E. F. (1988). Moderator Variables in Research: A review and Analysis of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6, 191-229.
- Webb, A., & Wheeler, S. (1998). How honest do counselors dare to be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 exploratory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Cambridge*, 26, 509-524.
- Worthen, V., & McNeil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5-34.
- Yourman, D. B., & Farber, B. A. (1996). Nondisclosure and distor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3, 567-575.
- Yerushalmi, H. (1992). On the concealment of the interpersonal therapeutic reality in the course of supervision. *Psychotherapy*, 29, 438-446.
- Veach, P. M. (2001). Conflict and counterproductivity in supervision-when relationships are less than ide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96-400.

원고접수일 : 2008. 5. 22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4

게재결정일 : 2008. 11. 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s Self-Disclosure and Counselor Self-Efficacy in Play Therapy Supervision: the Working Alliance as a Mediating Variable

Hae-Suk Cheun

MindClinic Didim

Mee-Sook Yo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u-Jin Cho

The Children Laboratory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s self-disclosure, counselor self-efficacy, and the no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 play therapy supervision. The targets of this research were 94 therapists, who undergone individual supervision at least three times with more than one supervisor or who are currently under such superv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apist's self-disclosure was positively related to counselor self-efficacy and the working alliance in play therapy supervision. Second, the working alliance in play therapy supervision mediated the path from therapist's self-disclosure to counselor self-efficacy.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apist's self-disclosure is directly correlated with counselor self-efficacy. Moreover, therapist's self-disclosure is indirectly correlated with counselor self-efficacy through the medium of the working alliance.

Key words : *play therapy supervision, self-disclosure, working alliance, counselor self-efficacy*